

이태리의 섬유기계 전시회 개최 결정

ITMA의 주도권 타격

이태리의 섬유기계공업협회(ACIMIT)는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편기(編機)와 가공부문에 속하는 마무리 기계의 국제 전시회를 2005년에 밀라노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동안 ACIMIT도 물론 ITMA에 참가하여 편기나 마무리기계 부문에서는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많은 관람자들의 관심을 끌어오던 중요한 출품자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ITMA로서는 2003년에 개최되는 제14회 전시회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ITMA는 1951년 유럽에서 창설되어 4년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를 돌아가면서 온 세계의 유명섬유기계회사가 개발한 최신 기계의 실물을 관객들에게 전시하고 시운전함으로써 창의성뿐만 아니라 기술력이나 성능, 디자인 등을 개방하여 자기 회사나 기술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산업부문의 올림픽 대회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 동안 특기랄 만한 획기적인 전시기계로서는 가연기(假撚技), OE정방기, 셔틀리스(shuttleless)직기, 최근의 콤팩트·스피닝 뿐만 아니라 고속화, 자동화, 정밀화 등이 손꼽힐 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OTEMAS는 일본의 섬유공업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이를 지탱해 주는 섬유기계공업이 경제발전에 따른 여유 국력과 적극적인 R&D로 세계수준에 이르게 되자, 아시아의 섬유업계를 겨냥하여 1977년부터 오사카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매 4년마다 ITMA와는 2년의 차를 두고 제7차 전시회까지 개최하였는데, 최근에 와서 아시아의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과 뒤늦게 중국, 베트남

등이 섬유 산업 발전에 뛰어 들면서 아시아 전역의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정책으로서 섬유 산업 발전에 주력을 하며 큰 발전을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거대한 영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사회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적극적인 변신 등에 힘입어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주목받아 유럽 · 미국 · 일본 등 여러 나라의 경쟁적인 자본 투자로 중국의 산업은 급신장하였으며 중국의 섬유기계부문에 대한 수요 또한 황금시장으로서 세계 섬유기계업체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세 속에서 ITMA는 아시아 시장에 대하여 지리적으로는 OTEMAS보다도 불리하므로 유럽에서만 개최하던 전시회를 아시아에서도 개최하여 동양의 시장을 뒤흔게나마 공략하여야만 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수차에 걸친 OTEMAS측과의 절충이 실패하자 ITMA 측은 마침내 단독으로 “ITMA아시아”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OTEMAS는 이에 밀려 2001년 10월 제7회 전시회로서 4반세기 동안 이어온 전시회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ITMA는 아시아에서의 섬유기계전시회를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ITMA측은 눈에 가시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럽 섬유기계업계에서 편기분야나 가공부분의 마무리기계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 뚜렷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ITMA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세계적인 전시회로서의 관록을 자부하고 있는 ITMA로서는 “종합”전시회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주목된다.

유럽의 섬유기계업계의 관계자 말에 의하면 “최근 이태리의 섬유 기계는 세계적으로 판매활동이 놀라울 정도로 활발하여 밀라노에서 “TE4TEX” 전시회를 ACIMIT가 주도하여 4년마다 개최하게 되면 점차 유럽 섬유기계업계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 같다”고 보고 있다.

ACIMIT는 “TE4TEX”를 개최하기 위하여 유럽 섬유기계제조업자협회

(Cematex)의 후원도 받아내고 "TE4TEX"에서 염료 및 제조 등을 소개하는 코너(corner)도 만들기 결정하였고, 섬유 및 실의 생산자에게도 문호를 열어 출품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기로 하여 다른 전시회사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